

[목회자 모임]

십자가로 가는 길 - (1) 옥합을 깨뜨림(요12장)

2020. 4. 10. 이현래 목사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여기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마지막이다.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더 이상의 기적이 또 있겠는가? 예수님의 기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데서 시작해서 결국 죽은 나사로가 사는 것으로 마감이 된 셈이다. 알고 보면 다 된 것이다. 변화로부터 시작을 해서 죽음에서 살아난 것으로 왔다.

12장에서는 잔치가 벌어졌다. 부활의 잔치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서는 이 잔치가 오면서도 자기가 죽음으로 가는 길로 예견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리아가 귀한 옥합을 깨서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었다는 것은 여로서 최고의 봉사라고 할 수 있고, 아름다움이다. 한 사람에게밖에 부을 수 없는 그런 향유라고 했는데, 그것을 예수님에게 부었다.

마리아는 왜 그렇게 했을까? 마리아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예수밖에는 없는 사람이다. 세상에 나가도 갈 데도 없는 사람이고, 인정을 받으려야 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밖에는 자기를 인정할 사람이 없는 여자인가 미리 죽음을 예견했다고 볼 수도 있다. 어쩌면 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례(장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요12:7)고 엉뚱한 말씀을 하셨다. 옥합을 깨뜨려서 발에 부었는데, 내 장사할 것을 예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항상 이 원칙이 적용된다. 일부러 그런 것이라기보다 그렇게밖에는 복음이 전파가 안 되는 것 같다. 베드로가 듣기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4:19)고 해서 따라갔다고 했다. 그런데 그것을 베드로 한 사람만 들었겠는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귓속말로 한 것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알아듣기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4:19)로 알아들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다. 왜 나왔겠는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

라함에게만 나오라고 했겠는가? 모든 사람에게 나오라고 했는데, 그 말을 받아서 나온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그 말이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뭐가 잘 안된 사람 같다. 잘 되었으면 나왔을 리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개화기 초창기에 잘 사는 사람들은 안 나타났다.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선교사들을 따라서 나오게 되었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개척자들이 된 셈이다. 양반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까딱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비난하고 우습게 생각했다. 그때 나와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 소위 신시대 여성, 신여성,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 운동에 앞장섰던 분들이다.

불러냄(부름)을 받을 때는 항상 가장 가난한 사람이 먼저 나오게 되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나올 필요가 없다. 잘 먹고 잘사는데 뭐 하러 모험을 하겠는가? 잘 사는 사람들은 움직일 필요가 없다. 고향보다 좋은 데가 어디 있는가? 그런데 **“너는 너의 고향(본토)과 친척과 아버지(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지시 할) 땅으로 가라.”**(창12:1)는 말이 들린 사람은 거기 있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뭐가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다. 복음의 성질이 그렇다.

중국에 들어간 기독교가 당 태종 때문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좋은가. 황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니 아주 간단한 문제이다. 그것이 경교가 되었는데, 그것이 얼마 못가고 없어져 버렸다. 일본에서 기독교가 들어갔는데, 상류층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존경받는 분이 많지만 기독교가 그렇게 커지지는 못한다. 일본에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아주 신사적인 사람들, 좋은 사람들, 존경할만한 사람들로 되어 있다. 그런데 교회는 잘 안 된다. 성경 연구하기 위해 모이지 죽자 사자 매달리는 사람이 없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이미 선악과에 배부르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것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거기서 낙오된 사람들이 있다. 노아에 대해 말할 때도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라고 했다. 노아가 무엇이 의인인가? 네피림 시대인데 장부요 용사요 다 유명한 자였던 시대인데 네피림이 판치던 시대라는 뜻이다. 그들은 거역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노아는 가만히 있어도 의인이다. 네피림이 못된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은 다른 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길이다. 길 자체가 다른 길이다.

기독교가 핍박을 받다가 좋은 세계로 들어왔다. 국교가 되었다. 그것이 기독교가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락한 것이다. 예수는 없어지고 교황이 나왔다. 황제와 교황이 나왔으니까 예수는 사라진 것이다. 황제와 예수가 어떻게 같이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길이 너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공존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것을 공존하도록 만든 것이 캐톨릭이고 종교이다.

예수님이 점점 더 깊은 이적을 행하실수록 반대로 다른 곳에서는 점점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점점 영광을 받아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점점 죽여야 되겠다고 모의했다. 바로 그 경계선에 와있는 것이 요한복음 12장이다. 이 경계선에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드린 것이다.

이것은 똑같다.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왔다는 것이나 노아가 그 시대의 의인으로서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었다는 것이나 다 같은 계열이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도 100살이 되어야 아들을 두었다는 것도 같은 일이다.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렇게 정해져 있다.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한 것(요12:7)이라고 말씀했다.

그 다음 사람들을 보면 희랍 사람들이 찾아왔다.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도 예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요12:23)고 하면서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12:24)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세상 같으면 큰 경사가 벌어진 일이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서 잔치가 벌어졌고, 희랍 사람들이 찾아와서 뵈자고 하게 되고, 참 중요한 일들이 발생했다. 예수께서는 오히려 여기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라 오려거든 나를 섬기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요12:26) 이 말은 희랍사람들이 섬기러 온 것처럼 보이지만 섬기러 온 것이 아니다.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되는데, 나를 따르지 않고 어떻게 섬기겠느냐는 것이다. 사람들은 섬기겠다는 사람은 많다. 그런데 따르지는 않는다.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를 섬긴다는 사람은 많고, 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쓴다. 하지만 따르지는 않는다. 섬긴다

와 따르다 는 완전히 다르다.

내가 한 대상으로서 존경하고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데 따르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다. 따르려면 자기가 없어야 따르는 것인데, 자기를 끝내야 따라가는데, 자기를 끝내려고 온 사람이 있겠는가? 다 자기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섬기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뭐가 되려고 오지 자기가 다 발 벗고 나서려고 온 사람은 없다. 이 말씀도 그런 말씀이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12:24) 돌아가는 형편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다. 옥합을 깨뜨려서 향류를 붓는데 나의 장사를 예비한 것이다. 또 희랍인들이 찾아와서 뵈자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죽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고 있다. 얼마나 이것이 다른 세계인가!

겻세마네 동산에서 하던 기도문이 그대로 나왔다.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요12:27,28) 똑같은 기도이다. 이렇게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 이 말씀을 하고 있다. 슬픈 일이 와서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고 말했었는데, 옆에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고 한다. 우레 소리가 났다고 했다. 이렇게 된 것을 보고 요한이 이것을 쓰면서 사이사이에 요한이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요 12:37)는 이런 말을 썼다.

12장을 읽어보면 희비가 엇갈리는 장면이다. 겺으로 보면 대단히 화려하고 영광을 다 받으시고 있고 세상이 다 환영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그것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다. 어차피 길이 전혀 다르다.

예수의 길과 전혀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다. 나도 내가 있던 곳에서 잘 되었으면 나올 것 같지 않다. 잘 안되어서 나온 것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자랑거리도 아니고, 나는 어쩔 수 없어서 이것 밖에는 길이 없어서 나온 것이다. 이런 분들을 보면 그럴것구나. 마리아를 봐도 그래서 그럴것구나. 아브라함을 봐도 그래서 그럴것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언제 사람이 다 구원이 되겠는가? 다 나같이 되어서 꼭 망해서 되겠는가? 교회에서도 앞서서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어떤 궁지에 몰려서 간증을 한다. 그냥 잘나가는 사람이 간증을 하는 법이 없다.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런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러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안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사람은 올 길이 없지 않은가?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 둘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결국 십자가이다. 예배소서에 그것이 드러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엡1:3~6)고 했다.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따로 없다. 십자가에 오면 똑같다. 세상에 살 때는 아브라함처럼 갈대아우르를 나온 사람이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거기서 고통을 당하다가 복음을 듣고 나온 사람이 있고, 또 그냥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만나지는가? 이 두 사람은 십자가 안에서 밖에는 만나질 데가 없다.

십자가에 가면 잘 먹고 잘 산 사람이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 다 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볼 때마다 신기하다고 생각된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딱 하나로 만들어버리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는가?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하나가 될 수 없고, 잘나가는 사람과 못나가는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없다. 그 속을 서로 알아 줄 수도 없고, 교통될 수도 없다. 우리가 위로 한다고 위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가서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다. 교회 안에서도 부자는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다. 그것이 평등하게 되는가? 안 된다.

십자가에 가야 그것이 해결된다. 거기 가면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다. 십자가 안에서 만유를 포함했다. 마리아나 모른다고 도망간 베드로나 다 한 자리

에서 만나게 된다. 이것이 신의 한수이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라.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겠는가? 공산주의는 물질의 평등, 소유의 평등을 주장하고 나왔다. 그런데 소유의 평등을 분배하려면 권력이 필요하다. 그냥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평등하게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평등하게 하려면 권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권력은 아주 강력한 권력이 안 된다. 왜냐하면 많이 있는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하는데 그냥 되겠는가? 그래서 폭력 혁명이 불가피하고, 폭력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공산주의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 그 근본 원리가 그렇다. 공산주의를 하려면 폭력이 없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어떤 경제학자가 강의를 하는데 우연히 TV를 보다가 보았다. 마지막 가니까 문제가 생겼다. 폭력혁명이 불가피해졌다. 그때 말을 끊어버렸다. 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다. 이상한 사람이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다. 100점짜리와 0점짜리를 똑같이 만들려면 권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소유의 평등을 가지려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똑같이 만들려면 권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이상만 보고 좋다고 생각한다. 그 이상을 실현하려면 뭐가 필요한지를 모른다.

또 자본주의는 어떤가? 무한자유경쟁을 시키는데, 격차가 많이 생긴다. 그 격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문제가 생긴다. 갈등이 불가피하게 된다.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그렇다. 어떻게 치우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초대교회에서도 그랬지만 자기의 소유를 모두 갖다 놓고 공동으로 사용했다. 초기 기독교 공산주의라고 한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생겨서 결국 못하고 말았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다. 이상을 따라서 월급을 받아서 다 한 통장에 넣는다. 자기 통장은 없다. 자기 필요한 것만 갖다 쓰기로 했는데, 얼마 못가고 없어졌다. 문*환 목사가 그런 것을 했는데 얼마 못하고 말았다. 세상은 어찌할 수 없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다 될 것 같지만 안 된다.

십자가 안에서 밖에는 하나로 통일이 될 수가 없다. 거기서 만나지지 않고는 하나로 만나질수 없다. 에베소서를 보면 둘 사이를 화목케 한다. 원수 되었던 것을 담을 허물고 화목케 한다고 했다. 옥합을 깨뜨린 이 여자와 나는 예수를 모르겠

다고 도망친 제자와 어떻게 하나가 되겠는가? 기독교 안에서 이것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하나 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것이 복음이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지 이것을 인간의 방법으로 고르게 해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일이다.

헬라인들은 살기 좋은 사람들이다. 지금 유럽이다. 지중해 연안 국가들인데 천해의 지형이다. 지중해 기후가 굉장히 좋고 환경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낙천적이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고통의 역사가 없다. 이 사람들은 철학이니 이런 것을 논하고 있는 형편인 사람들이다. 바울이 기껏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말쟁이가 말을 잘하네, 다음에 와서 또 들어보자고 했다.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소문을 듣고 예수를 찾아왔으니 우리 같으면 정말 환영할 사람들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 이런 사람들이 오니까 하신 말씀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12:24)고 또 말씀을 하셨다.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생각하는 세계가 아니고, 다른 세계가 막 벌어지고 있다.

요한복음 12장부터 가면 완전히 다른 판이 벌어지고 있다. 예수와 관계없는 다른 판이 벌어진다. 오늘 우리가 이판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오늘 기독교가 이 판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제시할 것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이것밖에는 제시할 것이 없다.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이 참 사람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 길로 와서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높든지 낮든지 다 하나가 되지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세계에서는 평등이라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한 형제간도 불가능한데 남남이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형제간도 부자 형과 가난한 동생이 있으면 부자 형이 가난한 동생을 잘 도와주면 좋은데 잘 안 된다. 거기서 격차가 생겨서 가난한 형제는 모임에 잘 가지를 못한다. 형제들이 여럿이 있는 집에서 한 사람만 가난하면 참석하기 어렵다. 여러 사람이 모아서 한 사람을 살리면 쉬운데 그것이 잘 안 된다. 될 것 같지만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사회가 저절로 그렇게 되겠는가? 총칼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공산주의를 하려면 총칼을 각오하고 해야 된다.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권력을 얻어서 자기가 총칼을 갖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방법이 없다. 그 이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그 이상은 참 좋지만 그 이상을 인간의 본성 속에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 말이다.

오늘 이런 환경 속에 있는 예수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나니까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 달라진 분위기 안에서 예수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자기의 길을 알고 있다.

요즘 어떤 사이비는 떠서 어쩔 줄을 모르지 않겠는가? 내가 신이 되었다는 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겠는가? 예수는 자기 갈 길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아도 내 위치를 알아야 되고,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아도 내 위치를 알아야 한다. 불변하는 위치가 나한테 있어야지 그 위치 없이 놀다가는 누구처럼 된다. 자기가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

어제 사랑방에 누가 오랜만에 와서 글을 썼다. 뭔가 이상한 이야기를 썼다. 환상을 보는 것 같은데 환상도 아니고 하여간 뭔가 새로운 세계를 연다고 열어놓았다. 내가 그랬다. 나는 처음에 시작할 때, 나는 내일 일도 모르는 피조물로 시작해서 지금 그때로부터 55년이 지났다. 지금에 와서도 나는 또 내일 일도 모르겠는 사람이 됐다고 썼다. 55년 후에도 나는 또 내일을 모르겠는 것이다. 55년 동안 내가 왔으면 내 길을 알아야 되는데, 모레는 몰라도 내가 내일은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똑같은 것이다. 내일은 모르는 것은 5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인데 뭐를 알려고 애를 쓴다. 그 형제를 보면 자기 방식대로 뭐를 알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것이다. 사고방식이 특이하다. 결국은 헛갈려서 다른데 다른 것을 만나고 있다. 인간의 바가지는 똑같이 생겼는데, 뭘 한다고 다른 것이 생기겠는가? 어차피 도로 인간의 생각이다. 마지막은 도로 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자리로 도로 돌아오는 것이지 뭣을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른다. 필경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창3:19) 우리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생각해보니 은혜였다. 흙으로 돌아가면 또 씨를 심을 수가 있다. 그것이 저주가 아니었다. 마지막 그것이 축복이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창3:19) 이것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다.

흙이 흙으로만 있다면 농부가 언제든지 또 밭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다. 어차피 처음부터 흙이었는데, 흙이 변해서 다른 것이 되겠는가? 흙이 도를 닦는다고, 믿음이 있다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그것이 저절로 그 안에서 씨가 나와서 열매를 맺으면 흙이 되겠는가? 흙은 여전히 흙이다. 오히려 씨가 들어오면 그 씨 밖에는 생산할 수 없는 그것이 된다. 좋은 흙일수록 옥토일수록 그렇다.

좋은 흙은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열 개 나오다가 백 개 나오면 좋은 흙이다. 옥수수 하나를 심어 놓았는데, 좋은 흙이 됐다고 해서 굴이 열리는 것은 아니다. 흙은 여전히 흙이다. 우리 인생은 도로 흙이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와서 너무 너무 축복이 된다는 것이다. 지금 내가 그로 인해서 내가 축복을 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예수님도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나면서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도 하고, 그 사람으로 했다. 천사로 한 것이 아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했다. 그 사람으로, 흙인 사람으로 그렇게 했다. 제주 땅에서 메밀 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것이 굴 밭이 된다. 땅이 바뀌진 것이 아니다. 땅은 그대로 있다. 열매가 바뀌졌지 땅이 바뀌진 것은 아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따를수록 더 흙이 되는 것이지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흙이 변해서 돌이 되거나 바위가 되거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예수님을 보라. 얼마나 화려하게 되었는가? 이정도면 사람들이 세상이 다 환영해야 하는데,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은 죽으러 가는구나. 내 앞에는 죽음밖에 없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다. 그것밖에는 내 할 일이 없구나. 내 길길이 없구나.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다.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례(장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요12:7) 내 장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다. 이 12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보게 된다.

13장에 가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만찬을 하고 전부다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이다. 기적은 끝났다. 더 이상의 기적은 없다. 더 이상이 기적을 해도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만해도 다 됐다. 더 할 필요가 없다.

가는 길은 사람을 건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길밖에는 없다.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요19:30)고 하셨다. 무엇을 다 이루었는가? 하나님은 자기가 지은 사람을 다 찾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을 찾아야 안식이 된다. 예수님께 서는 그 사람을 찾아서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아들의 일이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그 사람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께 가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 일이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이다. 자기는 자기 할 일을 다 한 것이다. 자기 할 일뿐 아니라 전 우주적인 숙제를 해놓은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

세상에는 이것이 없다. 이것이 없으면 희망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없으면 무엇을 해도 희망이 없다. 하나님이 안식할 수 없다. 예수님이 자기 일을 다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다. 뭐가 됐는가? 아무것도 안 됐다.

창세기 4장~5장에 있는 것처럼 몇 살에 나서 몇 살에 장가를 가서 몇 살에 자식을 낳고 몇 살에 죽었다는 이것밖에 없다. 아무것도 없다. 10대를 그렇게 한다. 10대라는 말은 온전하다는 말이다. 온전한 세대를 다 채웠다는 말이다. 먹고 입고 죽었다. 먹고 입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기 낳고 죽었다는 것밖에 없다. 동물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나 뭐가 다른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그 역사 안에서 그냥 끝날 사람들인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분이 있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이다. 다 이루셨는데 이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완전하게 소화해서 이것을 세상에 내놓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 헛일이다. 다른 것은 아무리 전해도 안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다, 저렇게 사랑했다고 백날해도 안 된다. 그것을 많이 전했지만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었으니까 그 완성된 일을 우리가 세상 앞에 내놓아야 된다. 나는 이것이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기를 원하고, 만민에게 전파되어서

제정신 차리는 세상이 되고, 제정신 차리는 인간이 되도록 거기에 우리가 거름이 되어야 한다.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선거철에 보니까 모두가 다 제정신이 아니다. 평소에 그랬는데 선거를 한다고 하니 제정신이 아닌 것이 드러난 것이다. 어찌하든지 표만 얻으면 된다고 날뛰니까 어찌겠는가.

우리가 이 속에서 신성한 일에 부름 받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내 인생이 이렇게 귀하게 부름 받았구나. 귀하게 쓰였구나. 옥합을 깨뜨린 이 여자가 이것 이외에 더 귀하게 쓰일 데가 어디 있겠는가? 여기서 자기 옥합을 깨서 예수님에게 부었다는 것보다 뭘 더 할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이다. 한 알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는 것보다 예수님에게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임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엡1:10)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다. 신령한 복이 무엇이겠는가? 이 복이 아니겠는가? 온전한 복이고 신성한 복이고 영원한 복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 또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한다.

천주교 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사제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기를!’하고 기도를 하면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사제님에게도!’라고 화답을 한다. 아주 멋있었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라고 하면 성도들이 ‘사제님에게도 함께하기를!’라고 한다. 종교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할 것 같다. 종교를 하려면 천주교에서 배워서 그렇게 해야지 어설프게 해서는 그 사람들이 보면 우스울 것이다.

코로나 세계에서 잘 살아남고, 또 더 어려운 일이 있을 텐데, 하여간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게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